

사회

# 영세 건설사 노리는 불법 고리채

## 연말자본금 132억 빌려주고 500%대 이자 챙긴 10명 입건

### 돈 빌려 예치후 바로 인출 상환 회사대표 20명도

건설회사의 연말자본금이나 주식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자들과 자본금을 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지역 건설 불경기 속에서도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주식회사 전문 컨설팅을 빙자해 중소기업에 수억원을 불법 대부하고 고리를 쫓던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여·46)

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 중소기업이나 주식회사 설립자금 명목 등으로 132억 원을 단기간 빌려주고 모두 8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들에게 2~3일간 수억원을 빌려주고 1억당 최고 550만원(연이자율 579%)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자만 1억 8000여 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회사 명의로 예치한 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뒤, 빌린 돈을 다시 인출한 A주식회사 대표 민모(39)씨 등 2개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법무사 윤모(56)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빌린 돈으로 연말자본금을 맞추던 위허주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중소기업회사 18개 업체

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등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영세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채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일감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면허라도 유지해보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결국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내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께에는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갯벌 고립 5명·방파제 추락 20대 잇따라 구해 인명구조 활동 빛난 목포해경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길을 잃은 관광객 5명과, 섬 방파제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20대가 해경에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1시50분께 신안군 증도면 해수욕장 앞 갯벌에서 길을 잃었다는 박모(여·48·광주시)씨의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등을 급파해 20여분만인 22일 0시10분께 박씨 등 5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조개를 잡으러 나섰다 가 갯벌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께에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에서 임모(26·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가 발을 헛디뎠다 3m 아래 테트라포트로 추락해 팔과 다리가 골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22일 새벽 3시10분께 임씨는 목포전용부두로 이송,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밤에 바다 지형을 잘 모른 채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로 구조 요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나원침 (8637) 김중두



## 사촌 형수 흥기 살해 40대 구속영장 신청

영광경찰은 22일 술에 취해 사촌 형수를 흥기로 살해한 오모(46)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1일 밤 10시15분께 영광읍 영광을 계승리 한 마을 정자에서 사촌 형수인 A(46)씨와 딸다름을 밟다가 흥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여성 속옷 훔치고 골목길서 자위행위

○수년 전 이혼한 뒤부터 여성 의류에 집착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급기야는 여성속옷을 훔치고,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시 동구 화동 정모(여·40)씨의 옷가게 앞에서 정씨가 걸어놓은 반바지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여성용 속옷과 바지를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최근 자신이 사는 집 앞 골목길에서 상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화인코리아 회생절차 신청 항고 기각

### 광주고법 "원심 판결 적법"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정만)는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오리유통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나모(65)씨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과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1회생절차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동의를 얻을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화인코리아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최근 영업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조건인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이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이상 언제나 회생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화인코리아의 지난해 말 영업실적이 167억원으로 파산선고 당시보다 139억원이 증가하고 현금시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회생담보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재금의 증가는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데다 거래업체에 지급할 선금금 축소 및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부도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화인코리아는 2005년 4월 화의 조건 인가를 받았으나 조건 이행 해태와 능력 결여로 2010년 2월 회생절차가 취소됐다.

이후 2010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 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며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화생방 훈련

을지훈련이 진행중인 22일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공무원들이 테러범의 북구청사 화생방 공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최시중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받고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84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

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남뉴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징역 6월 구형

유동천(72) 제일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 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남뉴스

## "세관이 압수한 물품인데..."

### 직원 사칭 짝퉁 명품 고가 판매

### 여수경찰, 60대 구속

세관 직원을 사칭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짝퉁 명품을 고가에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2일 짝퉁 명품을

진짜 명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임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시흥시 경인고속도로 연성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만난 김모(26)씨에게 세관 직원을 사칭해

가방, 모피코트, 시계, 골프채 등 9점의 외국 브랜드 짝퉁 상품을 세관이 압수한 해외 명품이라고 속인 뒤 540만원을 받고 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모(33)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 천체망원경 등 6점의 짝퉁 상품을 일제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84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적임  
\*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다시공된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소 특허등록번호(97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사공법 개발**

1. 비가 항상에도 큰크리터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없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장벽, 열대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일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잡힌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당시 시공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0리터 다시 틀어서 물바람이 완충된다.

\* 8기 특허 등록 및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에서 특허 보유함.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아침도 온도만 22도면 저온에서는 못잡힐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리터로 새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바람받지 않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미용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방수구멍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슬라브 지붕에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병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세도 안 변하고 여름에 물에서 일하고 물이오면 첫째, 산신하니 시원하고 산형기 안들어오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없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배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상순웅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 · 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 · 공휴일	12:00 ~ 20:00

\*골프채,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